

I | 전망 배경

-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적 불안도 해소되지 않고 있음.
 - 신흥국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2010년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고, 선진국은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.
 -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미해결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함.
 - 또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(MENA) 지역의 정정불안에 따라 원유 공급 차질 및 유가 불안 가능성도 상존함.
-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2010년에 비해 둔화됨에 따라 국내경제도 잠재성장률 수준(4%)으로 성장률이 회귀하고 있으며, 고유가 등으로 인해 물가불안이 확대되고 있음.
 - 2010년 상반기 국내경제는 빠른 성장세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, 하반기부터 점차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함.
 -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%를 상회함.
 - MENA 지역의 정치적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2011년에도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.
 - 2011년 하반기부터 공공요금 인상도 예견되고 있음.

■ 2011년 하반기 국내 금융시장은 이러한 실물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원화 강세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.

○ 2011년 들어 물가상승 압력에 따라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측되고 있음.

○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 등으로 원/달러 환율 하락(원화 강세) 압력이 높으며, 정부도 물가에 대한 환율의 영향을 감안하여 원/달러 환율 하락을 어느 정도 용인할 것으로 보임.

■ 2010년 국내경제의 빠른 회복세로 FY2010 보험산업이 고성장이었으며, FY2011 수입보험료의 경우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.

○ FY2010 보험산업은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의 견인 속에 높은 성장세를 시현함.

○ FY2011 물가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의 금리 경쟁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임.

○ 2010년 말 기준으로 퇴직보험이 폐지된 가운데, FY2011 하반기 (세제적격)무배당연금상품 출시 가능성으로 퇴직연금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.

○ 다만, FY2011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손보험상품을 중심으로 손해율이 높아질 우려가 존재함.

■ 본고는 이러한 국내외 경제 변화를 바탕으로 보험산업 관련 주요 지표를 전망하고, 보험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함.

○ 국내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변화를 검토한 후 국내경제 주요 지표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하고자 함.

○ 제시된 주요 국내경제 전망치를 근거로 보험시장에 대한 전망과 보험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경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함.